



“한국불교 전통문화 총화의 장”

2014불교박람회 성황리 개막
정치·문화계 인사 총출동
불교산업 진면목 조명 '기대'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를 총화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즐겁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6일 오후 2시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2014불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한 대회장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선대의 규범을 따르고자 하는 불교박람회는 한국 전통문화의 산실인 불교산업과 문화의 진면목을 조명하고, 불교예술의 미래를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라 하겠다”며 “불교계는 물론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여 불교산업 활성화와 정보교류의 장을 성황리에 만들어내고 침체된 관련 산업의 부흥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불교박람회를 공동주관한 불교신문 사장 성직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2014불교박람회는 대한민국 전통산업과 문화를 대표하는 컨벤션으로 성장을 꿈꾸며 대한불교 조계종 주최로 준비했다”며 “불교박람회는 이제 불교의 산업과 문화, 철학 등 불교의 전반을 한자리에

서 만날 수 있는 한국불교문화예술의 축제로 자리매김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동주관단체인 불광출판사 대표 지홍스님은 “전통문화로서의 불교문화가 내포하는 가치를 알리고 불교문화와 예술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게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는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14불교박람회의 개막식은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불교신문 사장 성직스님 등 내빈들이 박람회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커팅으로 시작했다. 이어 제1관 메인무대에서는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경계어산범패시연이 복청계, 천수바라, 도량계작법, 법고무, 축원 등의 순으로 펼쳐졌다.

개막식에서는 우수 참가단체에 대한 시상식 'Buddhism Awards'도 열렸다. 최우수콘텐츠상은 서울 봉은사에 돌아갔고, 올해 처음 불교박람회에 동참한 한국문화재단이 연합회는 공로상을 수상했다. 갤러리 나무는 우수업체상을 탔다.

이날 불교박람회 주요 내빈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 불교신문 사장 성직스님, 총무부장 종



2014불교박람회가 지난 6일 주요 내빈들의 테이프커팅을 시작으로 개막했다. 아래 사진은 문화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총무원장 스님.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비구·비구니 예비군승 모집

조계종 균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스님)는 육해공군 각 부대에서 군포교에 진력할 예비군승(비구 및 비구니스님 요원)을 오는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응시 희망자는 조계종 승적을 가진 사미계 수지 이상의 비구 및 비구니 스님으로 4년제 대학 졸업(예정)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만35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예비군승은 균종장교 선발 시 육해공군 중위 또는 대위로 임관한 뒤 군사학 주지로 임명돼 군포교에 매진하게 된다. 희망자는 소정 양식의 자필 지원서와 추천서, 자기소개서, 졸업 또는 재학증명서, 승적증명서, 사진 등을 구비해 균종특별교구 총무실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 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며 의식, 설법, 교리, 가치관, 상식, 인성검사 등을 평가한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훈스님, 기획실장 임갑스님, 사서실장 심경스님, 문화부장 헤일스님, 호법부장 원명스님, 사회부장 보화스님, 재무부장 보경스님, 백련문화재단 이사장 원택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명우스님, 서울대 전임연구원 명법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흥파스님, 법화종 총무원장 혜륜스님 등이다. 주요 사찰 주지 스님들도 참석, 불교박람회의 개막을 축하했다. 조계사 주지 도문스님, 용주사 주지 정호스님, 봉은사 주지 원학스님, 불영사 주지 일운스님, 봉녕사 주지 자연스님, 국제선센터 주지 탄옹스님 등이다.

▶관련기사 10·11면
하정은 기자 tomato77@bulgyo.com

“비구니, 호계·법규위원 참여해야”

전국비구니회, 총무원 중앙총회에 제안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우스님)가 오는 18일 제197회 중앙총회 임시회 개최를 앞두고 비구니 스님의 호계위원, 법규위원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총무원과 중앙총회에 전달하며 이번 임시회에서 관련 종헌·종법의 개정을 호소했다.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 중앙총회 의원들과 함께 지난 5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제안서를 발표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제안서를 통해 “비구니 승가와 관련된 사안은 비구니가 관여할 수 있도록 제197회 중앙총회에서 호계위원과 법규위원의 자격을 비구니도 가능하게 종헌·종법 개정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비구니 승가가 종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가칭)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를 종단 산하에 설립하고 이번 총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우스님은 이 자리에서 “비구니 승가는 포교, 교육, 수행,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종단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면서 “그럼에도 종단 내 비구니 승가의 지위는 1994년 종단개혁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구는 비구, 비구니는 비구니가 갈마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이번 총회에

서 반드시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중앙총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는 초심·재심호계위원에 비구니 스님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초심호계위원 7명, 재심호계위원 9명을, 비구니 스님 2명을 추가해 각각 9명과 11명으로 늘렸다. 또 ‘재심호계위원의 자격은 법계 종사·명덕, 승납 30년, 연령 50세 이상, 초심호계위원 자격은 법계 종덕·현덕, 승납 25년, 연령 45세 이상의 율장과 청규 및 법리에 밝은 승려’로 개정했다. 단, 비구니 호계위원은 비구 정계사건의 심리와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중앙총회의원 일운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열망을 담아 종헌종법 특위에서 강력하게 주장해 초심, 재심 각각 2명이 참여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 총회의원 스님들을 만나 법 개정을 위해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비구니회는 간담회 직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관련 제안서를 전달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종단 인사 등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94년 개혁불사’ 20주년

세부일정 확정...4월10일 기념법회

조계종이 오는 4월 10일 오전 11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1994년 개혁불사 20주년 기념법회를 거행한다. 또 오는 8월까지 세미나, 사진전, 백서 발간 등 개혁불사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전개한다. ‘94년 개혁불사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법등스님)는 지난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기념사업 관련 세부일정을 확정했다.

종단 원로 스님을 비롯해 교구본사 주지, 중앙승가대 학인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기념법회에는 진제 정정예하의 유시, 당시 개혁에 참여했던 방장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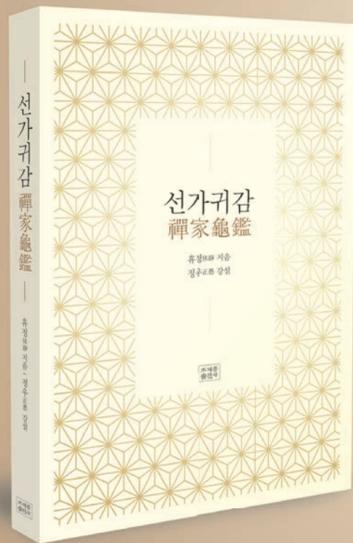
의 영상메시지, 관련 동영상 자료 시청 등을 통해 개혁불사의 의미를 되새긴다. 또한 이날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종단 개혁의 의미와 성과’를 주제로 제1차 학술세미나를 연다. 이어 8월까지 ‘종단 개혁의 성찰’, ‘과제와 전망’ 등을 주제로 총 4차례 내외로 세미나를 열어 개혁불사에 대한 성찰을 통해 종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기념법회 당일부터 4월 23일까지 2주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서 종단개혁 관련 사진전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연다.

한편 추진위는 이날 법안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행위원회를 확정했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 동국대 학생들이 장학금 1억원 기탁 4면

■ 제19회 포교사 고시 1차 합격자 명단 6면



불교수행의 입문서, 깨달음을 향한 필독서!

선가귀감 禪家龜鑑

서산대사의 《선가귀감》, 東巖 正愚 스님의 언어로 다시 듣는다

《선가귀감 禪家龜鑑》은 서산대사 청허당 휴정 선사가 1564년 금강산 백학암에서 찬술한 책이다. 수행을 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던 당시 시대상황에서, 수행자들이 어떻게 불교공부를 체계적으로 시작하고 수행할 것인지 안내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정우 스님은 은사이신 철우 태주 선사가 평생 지니고 공부하던 1,600년경 목판본 《선가귀감》을 저본으로 오래전의 가르침을 지금의 언어로 새롭게 풀어 강설했다.

휴정 지음 | 정우 강설 | 284쪽 | 2014년 1월 25일 출간 | 값 18,000원

동암 東巖 정우 正愚 스님은 평생 참선수행에 전념하며 법행 法行을 전한 철우 태주 鐵牛 太柱, 1895~1979) 선사들은 은사로 1960년에 출가하여 법을 이었다. 당대 대강백이신 강고봉, 호경, 혼해 강백으로부터 서집과 西集料, 대승기신론 大乘起信論, 대교과 大敎科를 마쳤다. 이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수료하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국장, 교무국장, 포교국장을 거쳐 조계종 중앙총회 11대, 12대 총회의원을 역임했다. 범어사, 불국사, 봉암사, 해인사, 송광사, 오대산 상원사, 지리산 칠불, 청암사 수도암, 덕숭총림 정혜사, 도봉산 망월사, 영축총림 통도사, 곡성 태안사, 백양사 등지에서 참선수행했다. 지금은 구미 금강사 金剛寺 주지소임을 맡으면서 다양한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전국의 제방선원에서 참선수행으로 안거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